뉴캣슬병이 퍼지고 있다!

김 진 영
〈의정부동산가축약품상사〉

봄철 해빙기를 맞이해서 뉴캣슬병이 서울근교에서 발생했다고 한다.

이것은전국양계인에게 경종을 울리는 적신호이니 모두가 방역대책에 전력하여야 하겠다.

십년 양계업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빈털털이로 만들 수 있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진 뉴캣슬병이기 때문이다. 그럼 오늘날 왜 뉴캣슬병이 만연하고 있는가.

① 한국에는 강한 뉴캣슬 바이러스가 상재하고 있는 오염된 나라이다.

② 상인에 의한, 오염지와 비오염지의 직접 간접 접촉의 증가로 잘 전파된다.

③ 비위생적인 환경아래 무리한 밀사가 백신의 효과를 저하시킨다.

④ 예방접종만으로 예방된다고 생각하여 전염물견의 소독, 계사출입인의 소독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⑤ 예방접종약의 보관및 접종시술 실수로 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수가 많다.

⑥ 공동 방역정신의 부족으로 병의 발생보고 지연으로 대책이 늦어진다.

⑦ 부화장의 병아리가 건강치 못하여 접종효력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관리실수로 인해서 양계인이 당하고 있는 피해는 너무 심한 경우가 많다.

뉴캣슬병의 정체

근년에 와서 뉴캣슬병의 증세도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게 변형되고 있으므로 전문수의사의 협조하에 병이 진단되어야 하겠다. 보통 호흡기증상, 신경증상, 소화기증상으로 분류하여 임상적으로 다루었으나 이증상이 단독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복합적으로 생기기도 하므로 다른 유사질병과 감별하기 어렵다.

즉, 호흡기 증상과 신경증상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나 보통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후 신경증상으로 변한다.

그런데 호흡기 증상이 있으나 신경증상이 안 보일때도 있으니 주의해서 관찰해야 한다.

또한 뉴캣슬병은 닭의 주령에 따라 그 증세와 폐사율이 다르다. 즉 어린 닭 일수록 심한 호흡기 장애로 100%에 가까운 폐사가 생긴다.

즉 호흡곤란, 기침, 가쁜 호흡, 목쉰소리, 재치기등의 소리들이 들린다.

그러므로 발병초기에는 C.R.D와 혼동하여 오진하는 수가 많다.

이런 닭들은 식욕이 감퇴되고 설사를 하며 콧물도 흘리고 눈동자도 혼탁해져서 난로가로 모여 웅크리고 앉아 있다가 쓰러지기도 한다.

보통 이런 증세가 10~14일간 계속하다가 신경증세로 변형되기도 한다.

이런 증상은 한쪽 또는 두쪽 날개를 떨어트리고 걸음을 비틀거리거나 비비꼬는 걸음을 걷기도 하고 목을 꼬아 천정을 바라보며 빙빙 돌다가 쓰러지기도 하는 기이한 모습들이 나타난다.

닭의 주령이 많으면 많을수록 뉴캣슬병에 대한 저항성이 커진다.

성계에서는 호흡기 증상이 주증이므로 기침과 호흡곤란 및 식욕감소 등으로 나타난다. 또한 놀랄 만한 것은 산란율이 급히 떨어져서 일주일정도 지나면 거의 제로(○) 상태로 하락하는 수가 많다.

산란율을 원상 회복하는 데는 적어도 일개

월 이상 걸리나 산란율이 다시 올라 가더라도 기형란(연란)이 많이 생긴다.

이와 같이 성계에서는 폐사보다는 산란율감소로 경제적 피해가 크다.

이 뉴캣슬병은 병독에 따라 임상형태로 나누면 첫째는 약독인 Lentogenic form이다.

이것에 감염된 닭은 약간 가래낀 소리를 내나 심하지 않고 산란율도 약간 떨어질 뿐이다.

신경증세가 없이 곧 회복되는 것이 보통이며 이 Lentogenic form이 C.R.D와 혼동되기쉽다.

둘째는 중간독인 Mesogenic Form이다. 역시 침울한 상태에서 기관나음(Rales)을 내면서 산란율이 떨어진다.

이때 생긴 알은 난각이 엷고 기형란이 생긴다. 이 메소제닉형에서는 마비현상과 보행곤란을 일으키는 신경 증상이 보인다.

셋째는 강독인 Velogenic Form이다.

소위 내장형 또는 아시아형의 뉴캣슬병이라 부르는 병이다.

식욕이 절폐되고 파란 점액 똥을 누며 심한 호흡기 증세를 보인다.

이 아시아형 뉴캣슬병에 걸린 닭은 2—3日내에 죽거나, 심하게 산란율이 떨어지면서 견디어 나가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뉴캣슬이 발생했다하면 이 강독인 Velogenic Form이다.

☆ ☆ ☆

필자도 최근 양계장을 방문하면서 뉴캣슬병과 관련하여 몇가지 놀라운 일들을 보았다.

① 뉴캣슬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하거나 접종을 걸루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다.

안양 가축연구소에 의하면 전국양계 보유수에반도 않되는 백신이 제조되는 실정이라 한다.

절대 반수도 판매되지 못하는 현시점에서볼때 우리 나라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뉴캣슬병이 발생할 폭탄(?)이 양계장 문앞에 묻혀 있다고 생각할 때 놀라지 않을 수 없다.

② 최근 부화장의 병아리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여 접종을 실시한 후에 폐사가 증가하더라는 것이다. 단군이래 호경기를 누린 병아리 시장이고 보면 병신만 아니면 다 파는 부화장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종계를 3차까지 환우하여 종란을 받아 부화를 해내니 양축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전보다 산란율이 떨어지고 병아리 육성율도 나쁘다고 한다. 왜냐하면 종계의 스트레스가 회복되기 전에 받은 종란일수록 질이 저하될 뿐더라 모계로 부터 이행되는 전염병이 생길 확율이 높기 때문이다.

③ B_1을 접종하여 3—4일 후에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서 피해를 보는 농장도 보았다.

이 얘기는 오래 전부터 듣는 말이다. 모든 백신은 국가검정품이므로 누구나 다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하겠다.

제조과정에서 B_1균주를 배양하여야할 종란이 마이코프라스마병에 오염된 경우 B_1을 접종하여 면역을 주는 반면 마이코프라스마병을 인공감염시키는 역설적 상황에 놓이게 된다.

4~5년전에는 모회사 제품이 이와 비슷한입장에서 양계업계를 떠들석하게 한 적도있다.

또 몇년후에 이런문제가 안생길 것이라고 보증할 사람도 없다.

왜냐하면 무균종란을 채취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실정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지면을 통해 최근에 양축가들이 당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토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① 하루속히 SPF(무균계) 종계장을 국가에서 만들어 그 종란을 갖이고 모든 실험과 백신제조를 하기 바라며, 이것도 축산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고 믿어진다.

② 백신제조업자는 시장경쟁으로 덤핑하는 상행위는 서로 자제해주기를 바란다.

국산백신가격이 가까운 일본의 백신가격의 $\frac{1}{4}$~$\frac{1}{5}$에 해당한다고 한다.

가격을 올려서라도 양질의 백신을 제조하는 것이 백신메이커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③ 백신은 건강한 병아리에는 효력이 있어도 약하고 병든 병아리에는 오히려 해를 끼친다는 것을 명심한다면 차제에는 부화장에서 좀더 품질위생관리에 신경을 써서 좋은 병아리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

뉴캣슬 백신효과를 기대 못할 경우 그 사업의 종말은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이다.